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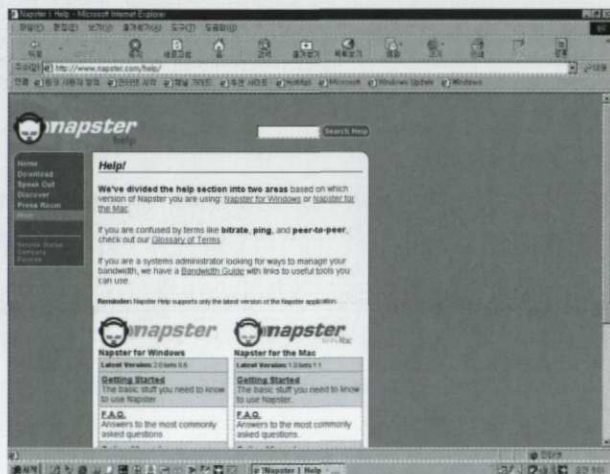


엔터프라이즈 시장 'P2P 향해 시작됐다'

문제점 산적 불구 대기업 P2P로의 전환 순조로워

얼마전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법정공방까지 가는 이슈를 만들어냈던 냅스터의 P2P 기술은 최근까지 소비자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더니, 이번에는 엔터프라이즈 영역에까지 그 열기가 번지고 있다.

이미 100개 이상의 P2P 관련 신생기업들이 생겨났는데 이들



은 한결같이 'P2P가 비즈니스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솔루션을 추구하고 있다.

어떤 조직에서든, 기업 지식을 활용하고 정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추세가 기업 합병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P2P 콘텐츠 네트워크는 바로 이런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대기업을 사로잡는 P2P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업 개발에 참여하면서 잠재적인 제휴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치자. 그 누군가에 대해 배경 조사의 일환으로써 사무소, 다른 사무소, 기존의 파트너들, 인터넷 등에 있는

자원들을 점검한다. 허둥지둥 e-메일과 전화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좀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웹사이트들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런 과정은 상당히 힘이 든다.

하지만 'P2P 콘텐츠 네트워킹'은 엔터프라이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P2P 콘텐츠 네트워킹의 아키텍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아키텍처를 모방하고 있다. 즉,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 아키텍처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직원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P2P 콘텐츠 네트워킹을 사용한다.

이런 기업들에게 P2P 콘텐츠 네트워킹은 전적으로 분산화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돼있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하나의 중앙 IT 설비에 모든 정보를 보내지 않고서도 엔터프라이즈 전체에 퍼져있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정보와 인프라가 지역적으로 선택·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지역 사무소들은 지역 사용자들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P2P 기술과 종종 연관돼있는 보안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 없이 P2P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이점을 요구한다. 따라서 남아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P2P 네트워크가 엔터프라이즈에 배치되면서도 IT 매니저들의 우려를 가라앉히고 지적 재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엔터프라이즈 P2P 모델

최근의 P2P 소동은 무료 콘텐츠, 여러 가지 권리 문제, 낮은 통제력과 심지어 무질서 상태 등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엔터프라이즈가 원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것 같다. 엔터프

라이즈는 투자 회수, 법적 보호장치, 백업, 보안, 예측 가능성 등을 원한다. 이것은 특히 IT 부서에 딱 들어맞는 얘기다.

IT 매니저 양성의 첫 단계부터, 그 매니저는 악의적인 공격이 항상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IT 매니저의 직무는 다운 시간을 없애고 데이터의 영속성을 완전하게 만드는 일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서버 룸들은 자물쇠로 채워지고, 날씨 변화로부터 통제되며, 전력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P2P 기술들은 개인 사용자들의 기기 사이에서만 피어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서버 룸을 피하고, 앞서 언급한 우려들을 유발한다. 우리는 기업들이 P2P 기술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P2P 기술은 네트워크 내에서 철저하게 관리되는 기기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

P2P의 특징은 자원들이 물리적으로는 매우 분산돼있는데도 마치 한 장소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상 집중화에 있다. 서버 기반 P2P는 P2P와 종종 연관되는 결합 없이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모두 제공한다.

냉정한 판단 요구

가치 있는 정보는 개인 사용자들의 데스크톱 및 랩톱 기기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다. P2P 콘텐츠 네트워크는 그런 기기에 쉽게 배치되며, 적절한 소프트웨어 보안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왜 순수 데스크톱 기반의 솔루션에 대해 여전히 망설이고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P2P 커뮤니티 전체와 관련돼있다.

첫 번째 문제는 신뢰성이다.

개별적인 기기들의 전원을 아무 때나 끌 수 있는 상태에서는 정기적인 백업은 어려운 일이 된다. 시카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근로자가 독일이나 중국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그 정보가 누군가의 서류가방 안 랩톱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 서버는 시간대나 여행 스케줄과 상관없이 항상 연결돼있고 좀더 믿을 만하다.

두 번째 문제는 보안이다. 많은 P2P 제품들이 강력한 소프트웨어 보안을 갖추고 있다. 빅스트페이지의 NXT 3은 그런 제품 중 하나로써, P2P 진위확인, 원격 허가, 엄격한 액세스 통제, 안전한 트랜스포트 등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물리적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일급 비밀 계획이 들어있는 랩톱을 비행기 안에 두고 내린다면, 그것은 비밀을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서버 룸은 보안 시스템을 통해 물리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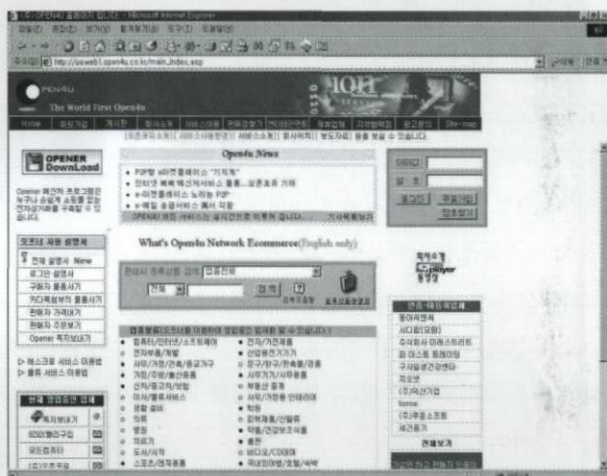
안전하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IT 부서들이 중요하고 민감한 파일들을 항상 작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물리적으로 안전한 기기에 보관하도록 직원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또한 P2P 콘텐츠 네트워크를 사무소나 서버룸 같은 로컬 데이터 센터 차원에서 배치하는 것이다.

순조로운 엔터프라이즈로의 이전

P2P 콘텐츠 네트워크가 대기업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이 분산된 로컬 정보 저장소를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상당한 가치를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엔터프라이즈에 출발점을 제공해준다.

동시에, P2P 콘텐츠 네트워크는 데스크톱 및 랩톱 기기들을 통



합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위계질서가 잡힌 P2P 콘텐츠 네트워크들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는 상당히 안전할 뿐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사이에서 철저히 관리되며 소규모 작업그룹 내에서는 좀더 자연스럽다.

P2P 기술들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좀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데스크톱과 심지어는 모바일 장비에까지 배치되는 일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더욱 일상적으로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고객들은 PDA와 기타 모바일 장비들을 자신의 콘텐츠 네트워크에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위험한 일로 간주했던 사업 관행을 채택하지 않고도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고, P2P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열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P2P 솔루션을 요구할 것이다. 